

2019. 01-02
VOL. 200

DAIL COMMUNITY

열정으로 나아가는 다일공동체의 2019년을 응원해주세요!



dail

C · O · N · T · E · N · T · S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으면 그 해의 사자성어를 각계각층에서 말하는 데 올해는 특별히 중소기업에서 뽑은 사자성어를 나누고 싶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사기(史記)에 나오는 말로서 “중석몰축”(中石沒鏃)이 선정되었는데 “돌에 깊이 박힌 화살촉”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정신을 집중하면 때로는 믿을 수 없을 만한 큰 힘이 나올 수 있음”을 말하는데 우리 모두 그런 믿음으로 새해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일공동체는 2018년 11월 11일 창립30주년을 맞는 다일의 날에 국내 사역으로는 30억의 후원금을 모아 아직도 임시가건물인 밥퍼를 재건축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역으로는 네팔신두팔축의 고아원과 탄자니아 다일비전 센터를 완공하여 봉헌하기로 했습니다. 이제까지 다일복지재단에서 국내외 해외 빈민사역을 감당해 왔는데 2018년부터 국내 사역을 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에서 해외 사역을 사단법인 데일리다일에서 나누어 감당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일의 후원자 여러분들은 2019년에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한 높은 꿈과 반드시 이루어 내고야 말겠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달려가도록 합시다. 2019년을 소금과 빛을 살아갈 구체적인 방법을 세 가지 키워드로 마음에 새기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

합니다. 첫째가 “지혜롭고 순결하라”입니다. 둘째가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셋째가 “인내하며 기다리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생각과 느낌에 붙들려있지 말고 세 가지 키워드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고 나아가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새로운 길이 열리고, 변화된 환경이 만들어지고, 날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용기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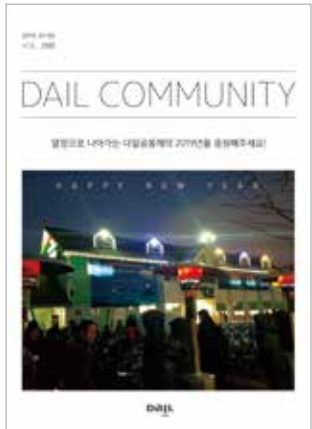
주운발로 알려진 홍콩의 유명한 배우 저우룬파는 전 재산 8100억을 기부하겠다고 밝혀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 한 달 용돈 11만원과 2년전까지 17년동안 스마트폰이 아닌 2G폰을 사용하였는데 2년전에 스마트폰으로 바꾼 이유도 고장나서 더 이상 쓸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그의 삶이 알려지면서 더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우룬파처럼 큰 뜻을 품고 세울 수는 있지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헌신하고 희생하려는 열정을 품지 않고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작은 용돈과 17년동안 2G폰을 쓰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뜻을 세우고 아무런 희생과 열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닐까요?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나누며 살아갑시다. 작은 것이라도 힘써 나누며 삽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꼭 이루어가는데 2019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작은형제, *다일* 올림

- 02 다시 짓는 밥퍼 이야기 - 예은이네 가족
- 04 천사병원에서 만난 사람들 - 다시 웃고 싶습니다
- 06 review - 서른 한 번째 거리성탄 예배
- 10 분원소식
 - 10 중국
 - 12 캄보디아
 - 14 베트남
 - 16 네팔
 - 18 우간다
 - 20 탄자니아
 - 22 미국
 - 24 천사병원, 다일작은천국
 - 26 밥퍼나눔운동본부
- 28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 31 후원 방법 안내
- 32 신규 후원회원 및 물품후원 명단
- 33 후원 안내
- 34 후원신청서
- 36 국내·해외분원 연락처



COVER STORY
이른 새벽 밥퍼는 불이 켜집니다. 수백 명의 밥퍼를 찾으시는 독거노인분들과 노숙인분들께도 새해가 더욱 희망으로 가득차기를 소망합니다.

발행인 최일도	편집장 김연수	편집위원 박찬미, 이순선	디자인·인쇄 틀니 디자인 어소시에이츠
발행일 2019년 1월	발행처 다일복지재단	주소 02558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전화 02-2212-8004	팩스 02-2243-8032	홈페이지 www.dail.org	

예은이네 가족 - 다시 짓는 밥퍼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벼랑 끝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생각해 봅시다”

올해 스물 아홉 살의 예은이는 두세살 지능과 행동의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밥퍼의 가족입니다. 시각장애가 동반된 복합 장애로 전혀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24시간 곁을 떠나지 않고 돌봐주시는 어머니 김명자님과 함께 밥퍼를 찾습니다. 우리들 가까운 곳의 이웃인 밥퍼 가족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예은이 어머니 김명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문1 밥퍼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예은이의 활동보조 선생님께서 밥퍼의 자원봉사자셨습니다. 정확치는 않으나 대략 2010년쯤에 밥퍼를 소개받고서 매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예은이와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질문2 예은이와 함께 가족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겪으셨던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은이는 올해 스물 아홉 살입니다. 하지만 두세살 아이처럼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또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잠시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대소변을 집안에 묻힌다던가 아니면 옆 사람에게 갑자기 달려든다든가 여러 충동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예은이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식사를 혼자 하게 되면 깨끗하게 먹기 힘들고, 외식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떠 먹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도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으면 예은이가 너무 답답해 해서 하루 한번씩 꼭 밥퍼에 나오게 됩니다.

밤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니 밤에 자주 깨어서 화장실에 데리고 가야하고, 그래서 저는 늘 잠을 제대로 자기

어렵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밤중 소변 실수로 자주 이불 빨래를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아이들이 지금보다 나이가 어렸을 때는 예은이 오빠인 한 살 위의 아들을 잘 보살피기 어려웠습니다. 예은이 아버지 또한 여러 사정으로 점차 일하기 어려워져서 지금은 제대로 경제적인 활동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삼십년 전 처음 결혼 하면서 빌려던 돈을 지금까지 갚고 있습니다. 요즘 같이 예은이 아버지의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 예은이 보조금으로 생활비를 보태기도 합니다.

삶의 경제적 기반이 미약했기에 빚을 지고 출발한 결혼생활은 삼십년간 빚을 조금 갚고 다시 빚을 지는 반복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들은 평범하게 자라서 대학 교육을 겨우 받을 수 있었지만 삼천만원이라는 학자금 대출을 등에 짊어지고 이제 막 사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학창시절에도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고 스스로 생활을 위해 돈을 벌고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도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장애인 동생까지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취업을 내보내며 동생이나 부모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 하나라도 제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보라고 떠나보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생각하는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또 다시 빚을 지고 결혼 자금과 집 마련을 해야 하니 차일피일 결혼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또 헤어지는 건 아닌지 솔직히 많이 걱정되지만 아무 도움이 안되는 저이기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도 녹록치 않으면서 늘 가족에게 희망이 되고 이제는 돕기까지 하는 착한 아들이 있어서 마음만은 든든합니다.



질문3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예은이의 미래와 가족의 소망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결혼하지 삼십년이 거의 지나고 있습니다. 예은이 위로 한 살 차이의 아들도 두었습니다. 이제는 남은 소망이라면 죽기 전에 빚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제껏 조금씩 갚아 왔기 때문에 즐기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1800만원이라는 큰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빚의 굴레를 벗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신앙의 힘으로 견뎌온 부분이 큼니다. 아무쪼록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4 간절한 바람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저도 남은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형편이 나아지면 저도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도움만 받다가 가지 않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을 한번이라도 할 기회가 생길지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

얼마 전 예은이네 가족은 케이블 방송에 사연이 방영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은이네 가족의 어려운 상황을 방송에 내보내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나마 빚이 있어도 4000만원의 전세에 살고 있으면 형편이 괜찮지 않냐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느새 삶의 어려움도 비교의 대상으로, 판단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은 조금 더 낫다 그렇지 않다고 바라보지 않고 고통을 있는 그대로 공감해 줄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삼십년간 이어져 온 밥퍼의
밥상 공동체 가족들은 많은 사연을
안고서 살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분들이 날마다 찾아오시는 밥퍼가
더욱 든든히 재건축되어
밥퍼를 찾으시는 분들의 삶에
지속적인 동반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웃고 싶습니다

1. 알제리에서 어떤 상황속에서 한국으로 오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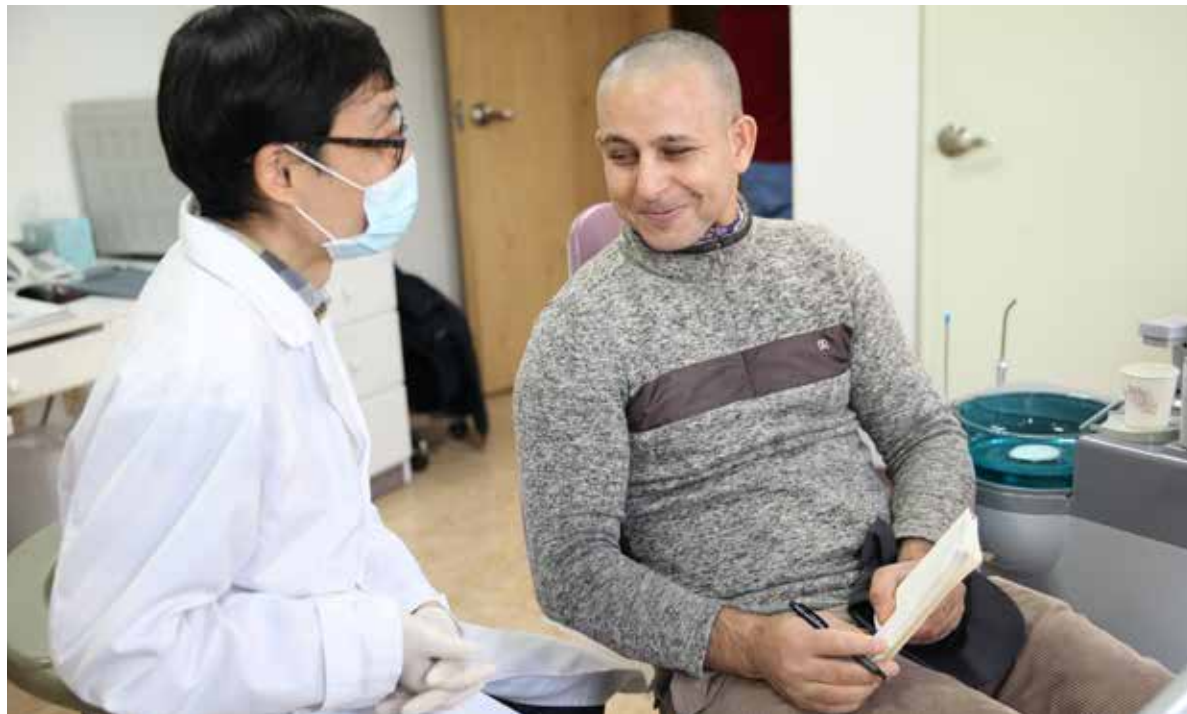
무척 오래전인 1996년 말쯤에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의 조국 알제리는 내전중이었고 지금도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저는 안전한 삶을 위해 난민으로 이곳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알제리 내전

1991년 12월 26일 - 2002년 2월 8일

약 십년간 민간인 15만 - 20만명이 사망하게 됨
군사 쿠데타로 정부군이 승리하나 이 내전의 결과로 인근 북아프리카에 내전이 번지게 됨.

이후 강대국의 개입으로 진정되는 듯 하나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고 지속적인 테러가 발생하기도 함. 쿠데타로 강력한 정부가 생긴 이후 현재는 독재정부이나 내전은 종식된 상태임.



하지만 정부의 독재 성향으로 민주적인 내부 상황은 아님. 1999년 이후 현 대통령이 4번 당선되며 19년간 통치가 지속되고 있음. 하지만 오랜 내전으로 지친 국민들은 인권의 나라에서 아랍의 봄이라고 불리는 민주주의 변화가 일어나는 현재에도 독재 정부에 큰 반대를 하지 못하고 있음.

2.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 인생은 불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주를 위해 일하며 불안함 속에서 매일 매일 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없습니다. 2013년 이후 저는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작년 2월에 있었던 자살 시도가 가장 최근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이민 구금이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 이후 비자를 연장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면을 받고서 이제야 다시금 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조원식 원장(서울치과)



2 김명선 원장(단아치과)

3. 어떤 이유로 다일천사병원을 찾아오시게 된건지 궁금합니다.

인도주의적 체류 지위를 얻어서 난민을 위한 쉼터에서 이곳 다일천사병원으로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래전 암으로 인해 치아가 거의 손상되고 일부만 남아 있었으며 후두암 수술로 인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음식물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여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돈도 없고 여러 상황이 안좋았지만 다행히 다일천사병원을 통해 틀니를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큰 출혈이나 기타 악화되는 상황없이 무사히 발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적절한 치료를 진행해주신 병원의 친절함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4. 다일천사병원을 통해 틀니를 제공받게 되셨는데요,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신가요?

틀니 작업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작업이지만, 꾸준히 무척 좋은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를 담당해 주시는 치과선생님은 무척 경험이 많으시고 능숙하신 분이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저도 인내와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애써 주시는 좋은 간호사님과 많은 좋은 분들께 감사합니다.

5. 앞으로 삶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평범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다시 웃게 되는 것.. 그것이 제일 큰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다른 도움의 손길을 통해 전자인공후두기

(성대의 떨림으로 기계음으로 대신 언어능력을 수행하는 기기-목에 착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대표적으로 스티븐 호킹박사가 착용하여 사용함으로 대중들이 인지하는 계기가 됨)를 통해 다시 말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일천사병원의 틀니 지원을 통해 다시 웃을 수 있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 되어서 다시금 매일 매일 밝은 얼굴로 일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월이면 완료되는 다일천사병원의 틀니 제작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위한 음식 섭취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불안장애 치료도 받고 있는데 이 또한 2019년 상반기에 끝나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 다일천사병원과 다일공동체에 전할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일천사병원과 다일공동체에 저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병원의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진료해 주시는 치과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 다시 웃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선한 일을 위해 애써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다일공동체!!!

* 드림 치과 기공소 틀니 제작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거리에서 드리는 서른한 번째 성탄예배, 소외된 이웃들과의 따뜻한 나눔!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청량리 밥퍼운동본부 앞마당에서는 다일공동체의 서른한 번째 거리성탄예배가 있었습니다.

다일공동체는 1988년부터 매년 거리성탄예배로 무의탁 노인, 노숙인 등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어 왔는데요. 올해는 약 450여명의 자원봉사자들과 2,500분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함께하였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거리성탄예배에 참석하신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서는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다일공동체와 뜻을 함께하는 분들의 정성과 노력에 그러한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정영택 목사님께서 성탄 축하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요. 혼자 이루는 것보다 여럿이 이루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이며, 내 주변의 이웃과 나누는 작은 평화의 인사말이 큰 평화의 파도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의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다일공동체와 밥퍼의 역사는 30여년이 흘렀지만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하는 장소는 아직도 임시 가건물로서 그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밥퍼 건물의 재건축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를 알리기 위해 박상원 홍보대사님께서 밥퍼 재건축 후원 안내와 성원 및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특히 이 날은 다일공동체의 새로운 홍보대사의 위촉식도 가졌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다일공동체와 함께 해주신 박상원 홍보대사님과 앞으로 더욱 큰 활동을 펼칠 새로운 홍보대사님은 누구일까요? 바로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배구단 및 FC서울 등 한/영 스포츠 아나운서로 활동 중인 채가혜 아나운서님이 그 주인공입니다. 채가혜 아나운서님은 위촉 소감으로 더욱 많은 분들이 다일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또한 밥퍼 재건축을 위해 힘써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특별봉헌을 위해 서혜연 교수님과 제자들께서 아름다운 하모니로 찬양을 드리고, 조성기 목사님께서 이를 위한 봉헌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이후 최일도 목사님의 선창으로 총 19분의 내빈 분들과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세계인권선언문을 낭독하신 뒤 생명의 쌀 이어가기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정성들여 준비한 방한복과 월동키트를 2,500여명의 이웃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성탄 선물을 받은 어르신들이 아이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선물을 건네는 저희의 마음 또한 더할 나위 없이 기뻐했습니다.

방한복키트는 고성, 다이소, 동아제약, 문화체육관광부, 본도시락, 서울석유, SGI서울보증보험, 서울우유 등 30여개의 기업과 많은 개인 후원자들의 손길들이 모여 정성스레 마련되었습니다. 방한복키트에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두터운 겨울 점퍼와 사랑의

도시락, 핫팩, 양말, 장갑, 생수, 간식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웃들과의 나눔을 위해 경희대여직원회, 건국대행정대학원, 한양대83학번모임, 염광고, 재현고, 정신여고, 광희중, 성신여고를 비롯한 약 45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힘써주셨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이른 아침부터 일을 돕느라 힘들고 분주했음에도 자원봉사자들의 얼굴에는 밝고 환한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봉사에 임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감동하여 벅차오르는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다일공동체와 함께해 주신 자원봉사자의 수는 약 50만 명이 넘습니다. 다일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님께서서는 그동안 다일과 함께해 주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오늘의 거리성탄예배가 있을 수 있었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을 위해 함께하고 노력하는 다일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서른한 번째 거리성탄예배의 소회를 밝히셨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임해주신 봉사자들 덕분에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웠던 성탄예배였습니다.

추운 겨울날,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평화의 바람이 닿았기를 바라며,

서른한 번째 다일공동체의 거리성탄예배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단법인 데일리다일 후원 관련 안내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다일과 함께 동행해주시는 후원회원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늘 변함없이 다일의 사역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온 마음 다해 감사인사 드리며, 올 한해도 후원자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다일공동체는 보건복지부 소속 사회복지법인에서 국내, 해외사역을 함께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해외사역은 외교부 관할의 사단법인에서 진행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다일공동체의 해외사역은 사단법인 "데일리다일"에서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다일공동체는 2018년 11월 11일, 외교부의 지침에 따라 사단법인 데일리다일을 설립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데일리다일은 현재, 해외 무상급식사업과 1:1 아동결연, 네팔 고아원, 탄자니아 비전센터 건립 등의 해외 아동 꿈퍼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사단법인이 각각 분리됨에 따라, 국내사업 후원회원과 해외사업 후원회원의 후원금 입금계좌의 분리가 불가피하여, 지난 2018년 10월부터 유선으로 해외사업 후원회원님들의 후원금 입금 계좌의 변경을 도와드렸습니다. 후원금 입금 대표 계좌변경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재 동의를 너그럽게 양해해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선 연결이 어려워 변경해드리지 못한 회원님들은 연락이 닿을 때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다일복지재단 계좌로 후원금 출금이 진행됩니다. 계좌 변경을 위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이오니, **02-2212-8004**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꼭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원금 출금계좌가 변경된 데일리다일 회원님들의 경우, **2019년 1월 회비부터 데일리다일 계좌로 첫 출금이 진행**되었습니다.

(통장기재내역 : 데일리다일후원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다일복지재단 · 데일리다일 후원관리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02-2212-8004 -> ARS 후원관련문의 1번 누르시면 연결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사장 최일도

사무총장 최홍

실무담당 조예슬 주임 / 070-4099-9205

박소연 간사 / 070-4099-9198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후원회원님께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발송일시	구분	후원금 공제범위
1월 중 요청자에 한하여 우편 발송	개인 (주민등록번호)	세액공제 ▶ 기부금액의 15% 공제(기부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공제)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세액공제 ▶ 기부금액의 10% 내에서 전액 공제

다일공동체 연말정산 안내

Q. 다일공동체에 후원한 후원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다일복지재단(국내후원)은 사회복지법인, 데일리다일(해외후원)은 사단법인 지정기부금 단체로 각각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일복지재단 계좌로 입금하신 경우는 다일복지재단 명의로, 데일리다일 계좌로 입금하신 경우는 데일리다일 명의로 발급됩니다.)

Q. 기부금 영수증을 타인 명의로 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기부금 영수증은 후원자 본인/법인단체 명의로만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후원금 입금자명과 후원자 본인의 명이가 동일해야 합니다.

Q. 가족(자녀 또는 부모님, 형제자매)이 낸 기부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납세자의 기본 공제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 또는 부모님, 형제자매 명의의 기부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는 납세자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공제대상에 포함할 가족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다른 납세자의 기본 공제자인 경우 중복등록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작년에도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월 공제를 통해 올 해 기부금 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5년 이내 후원금까지 이월 공제 가능합니다. 단, 기부금 공제를 신청했으나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만 이월공제가 적용됩니다.

절약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다일공동체는 2018년도부터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발송비용 절감을 위하여, 요청하시는 분에 한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우편 발송해드리는 것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절감된 비용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하여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우편물 대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들어가시면 소득공제자료를 출력/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등록된 분에 한하여, 2019년 1월 15일부터 열람 가능합니다.)**

2) 다일공동체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dail.org 접속** -> 로그인 -> 나의 후원정보 -> 기부금영수증 및 고유번호증 출력
(단, 사단법인 데일리다일 계좌로 후원하신 회원은 홈페이지 준비 중으로 02-2212-8004로 직접 연락하셔야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국 CHINA

“新年快乐(썬니엔 콰일러) 즐거운 새해 보내세요!”

중국의 춘절(설날)도 한국처럼 매우 큰 명절이라 벌써 거리마다 명절 기운이 가득합니다. 긴 연휴를 미리 준비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축하의 인사를 나누곤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중다일을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모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2019년, 다 잘 될 것입니다!

명학이와 김성재 사장님

중다일 다일어린이집 졸업생 박명학은 2년전부터 한국 Obey & Praise(대표 김성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구장의 전광판 등을 제작하는 성실하고 신뢰가 가득한 멋진 회사인데 이 회사의 김성재 사장님은 10년전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10년간 네다일, 필리핀, 중다일에 봉사활동을 직접 혹은 직원들과 다니시며 아동결연, 우물, 빈민촌 태양열 전기설치봉사, 정기후원 등으로 어려운 이웃을 10년을 드러내지 않고 한결갈

이 섬기시는 분입니다. 캄다일에 처음 봉사를 오셨을 때는 총각 사장님이셨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결혼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두 아들의 아버이기도 하십니다. 중국 다일어린이집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간 명학이를 채용해 가족처럼 대해 주시며 가르치고 함께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한국어를 읽지도 쓰지도 못해 서로 어려움이 많았을텐데 지금은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아는 사이가 되고 회사의 중국 관련 업무에도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명학이도 사장님이 너무 좋다며 오래 일하고 싶습니다. Obey & Praise 파이팅!



1 김성재님 수상사진



중다일 애심회 소식

중다일 애심회는 중다일 주력사업이었던 아동지원 사업을 넘어 지난해 연말부터 농촌 양로원 지원과 훈춘시 저소득가정, 농촌 조손가정 지원사업을 확장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크게 확장하지 못하고 작게 시작하고 있지만 첫걸음이 소중하고, 또 중다일에 새롭게 보여주시는 뜻이 있음을 믿기에 정확한 현지조사 등 성실한 준비로 이웃을 섬기려 노력하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2월 5일, 춘절을 기다리며 다일어린이집 졸업생들을 위한 2019 홈커밍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훈춘 지역 정기모임 외에는 1년에 한 번 만나는 소중한 만남이기에 돌아오는 가족들을 위해 아이디어를 짜고 숙소도 정리하고 영상도 준비하며 아름다운 만남을 준비합니다.

지난달 중다일 애심회 남자 숙소에 하이버가 새로 들어와 공동생활을 시작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복리원에서 출원한 권상우도 합류해 애심회 남자 숙소에는 모두 4명으로 식구가 붙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국다일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중국 다일공동체 +86-433-753-8004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 캄보디아 CAMBODIA

다음세대의 나무를 심는 꿈퍼

살롱! 사랑과 평화의 이름으로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서 인사드립니다!

14년간의 뜨거운 밥퍼 캄보디아 씨엠립 수상마을...

벌거벗고 뛰어오는 남자아이, 머리카락이 뒤엉켜 수세미 같은 머리를 한 여자아이, 먼저 줄을 섰다고 사납게 쏘아대며 싸우는 아기엄마들... 처음 밥퍼에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잠시나마 회상해 봅니다.

지금은 참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밥퍼를 오면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뛰어가는 곳은

'수돗가'입니다. 손을 씻고, 웅기종기 줄 맞춰 자리에 앉는 예쁜 아이들...

줄을 서서 배식을 기다리며, 옷도 입고, 신발도 신고 다닙니다.

무엇보다도 하얀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80퍼센트도 넘을 정도로 영양가 있는 한 끼 식사로 건강해진 우리 아이들이,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다일공동체가 존재하는 최고의 가치가 바로 이 모습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꿈을 퍼 올리다, Dream for! (기숙사)

초창기 프놈그라움과 쯡크니어 마을에는 초등학교만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중,고등학교가 처음 개원하였습니다.

캄보디아는 대학교를 가려면 12학년(고3) 수능시험에서 최저 E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입학할 수 있습니다. 보통 5~60퍼센트 대의 학생들이 수능에 패스하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꿈을 푸는 밥퍼에서 밥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대학 수능에 점차 합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학가들이 시내에 있어 '꿈퍼(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초,중,고교생과 대학생이 생활하

며 꿈을 키우는 공간인 꿈퍼의 든든한 꿈나무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캄보디아다일공동체의 자랑이자 희망인 두 아이들, '쏘피어'와 '쏘타이'는 대학생입니다. 쏘피어는 앙코르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며, 쏘타이는 Build Bright University 건축학과 4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쏘피어는 3학년 마지막 학기를 마치면 곧바로 '다일 천사클리닉'에서 간호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쏘타이는 한국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토픽3급에 합격하여 국비장학금 유학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히 토픽&건축학 공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또 한명의 특별한 꿈나무 '르은'이는 심장병을 치료 받고 돌아와 늦게 공부를 시작하여 18살에 초등학교 6학년을 재학 중에 있지만, 한국에서 받은 사랑의 빛을 갚겠다는 의지로 힘겹게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년의 나이에 초등학교로 등교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면 안쓰럽고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캄보디아다일공동체 꿈퍼(기숙사)는 다음 세대 리더자를 세우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온 마음을 다해 심어가고 있습니다. 꿈퍼(기숙사)리더자 나무 한 그루를 심는 일에 동참하실 거룩한 '샵'을 기다립니다.

고등학교 등록금 1년 300달러, 대학생 등록금 1년 700달러입니다.

솜 어썸!(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855-12-808-861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베트남 VIETNAM

사랑은 선율을 타고~ K.I.S (KOREAN INTERNATIONAL SCHOOL)오케스트라!!

다일공동체 소식지를 구독하시는 독자 분들께 두 번째 건전하고 착한 모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으로 감동을 선사하고, 밥으로 감동을 선사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K.I.S오케스트라 리더인 최재인 학생의 글로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에서 2015년에 창설되어 지금까지 약 3년 간 활동하며 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에서 항상 빠지지 않을 정도로 학교를 대표하는 단체로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음악 그 자체가 필요하거나 혹은 음악적인 치유가 필요한 곳이라면 장소와 여건을 가리지 않고 어디든 찾아가는, KIS 오케스트라입니다.

KIS 오케스트라는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내에서 악기를 다룰 줄 알고 음악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모여 악기로 함께 하나의 조화를 만들어 가면서 공부로 인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전한 학창 시절을 보내며, 악기 실력도 향상시키고, 더불어 추억도 쌓아가자는, 소소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저희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바이올린부터 시작해서 비올라, 첼로 등의 다양한 현악기들 및 오보에, 플루트, 색소폰 등의 다양한 관악기들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오케스트라 연습에 참여하여 꾸준히 실력을 향상시키며 단원 각자가 자기계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꾸준한 연습으로 향상된 실력을 가지고 현지 및

재외국민 단체로 연주 봉사를 나가거나 학교 행사에도 나가는 등 다양한 사회 기여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비록 KIS 오케스트라가 아직은 베트남 내에 있는 모든 분들께 음악을 들려드리지 못했지만, 저희의 부족하기만 한 연주가 현지인 분들과 재외국민 분들의, 일상 생활에 지친 마음이 잠깐이나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단원들 모두 정기 연습이 있을 때마다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연주가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의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열심히 연습에 임하고 더욱 완벽한 음악을 만들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가는 KIS 오케스트라가 되겠습니다.

글쓴이 최재인 오케스트라 악장



1 K.I.S오케스트라 월병후원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베트남 다일공동체 +84-90-382-0918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2 K.I.S오케스트라 등굣길 음악회



3 K.I.S오케스트라 밥퍼봉사

네팔 NEPAL

밥퍼 재개, 성탄 행사

짜이머시! 2019년 기해년을 맞아 히말이 병풍을 이루는 네팔에서 인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후원회원님들에게 은혜 넘치는 2019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는 더욱 많은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후원회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시작한 밥퍼

찬바람이 불던 12월 4일, 네팔다일공동체에 따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의 눈물어린 기도가 모여 드디어 사회복지부로부터 사업 허가가 났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인 12월 5일, 센터를 구석구석 쓸고 닦으며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12월 6일 네팔다일공동체가 다시 열린다는 소문이 마을 끝까지 전해졌기를 바라며 밥퍼 주방장님과 스텝들은 정성으로 밥을 짓고 맛있는 달과 딸가리를 만들었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녹이는 달과 빛 향기에 많은 아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센터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밥을 받기 위해 의자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는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찾아온 밥퍼이지만 봉사자를 자처하는 아이들은 각자 자신의 앞치마를 챙겨 입고 제자리를 찾습니다. 6개월

의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밥퍼에서의 시간은 멈추었던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오늘만큼은 특히 밥과 딸가리를 덜어주는 봉사자가 더욱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평소엔 깨작깨작 잘 먹지 않던 아이도 따뜻한 달بات을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바라보는 스텝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점점 짧아지고 추운 기운이 감도는 머노하라 마을에 네팔다일공동체가 따뜻한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밥 한 끼 제대로 챙겨먹기 힘든 아이들이 매일매일 밥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며 자라날 수 있도록, 네다일의 밥퍼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성탄축제

12월 22일 토요일, 네팔다일공동체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다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 데 모여서 발 디딜 틈이 없이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카트만두 지부에는 약 830명의 사람들이, 포카라 지부에는 약 130명의 사람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날은 특히 네팔 다일공동체의 비슈누 마담이 산타 복장을 한 채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누어 주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즐거운 함성소리가 넘쳤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공연단들의 공연이 예배의 분위기를 한껏 고취시켰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많은 팀들이 참가하여 기쁨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는 후원자님들의 사랑과 후원으로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시린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모자를 선물하였는데,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마을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머노하라 사람들에게 일 년 중 꼭 기다려지는 연례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추운 겨울, 우리에게 주는 선물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같이 네팔다일공동체도 머노하라 마을 사람들에게 매년 선물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이브에는 예수님 나심을 더욱 기쁘게 누리기 위해 염소고기 특식을 준비하였습니다. 매일 먹는 달bat 딸가리도 맛있지만, 윤석화 홍보대사님과 김성재 후원자님의 후원으로 준비되는 염소고기는 아이들에게 생일상처럼 기대되고 설레는 음식입니다.

추운 겨울에 보양식으로 제격인 염소고기를 보는 아이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염소고기 리필을 외치는 아이들로 인해 봉사자들은 더욱 분주하게 움직여 땀을 뺀지만 노동 후에 먹는 음식이 역시 맛있으며 엄지척을 보입니다.

아이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정성어린 밥을 지어먹일 수 있도록 후원자님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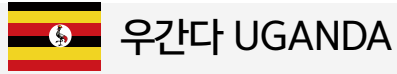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네팔 다일공동체 +977-98494-58330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이제는 더 잘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우간다 공립초등학교 교실은 어둡습니다. 교실에 전구가 없기 때문인데요. 설령 교실에 전구 소켓 하나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구는 끼워져 있지 않습니다. 학교 운영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전기시설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적도의 햇살이 밝게 비치는데 전등을 켜지 않으니 어두운 실내에 있다 보면 눈이 참 아픕니다. 저희는 잠시 교실 안에 있어도 이렇게 눈이 아픈데 6시간~8시간을 교실에 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눈이 아플까요? 이런 환경으로 인해 고통받는 아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 마음이 아픈 건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NGO ‘비전케어’와 함께 협력하여 키티코 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시력검사를 설치하였습니다.



1 재검사를 위해 등록을 합니다

검사 결과 눈에 상처가 있거나 사시, 백내장, 녹내장으로 의심되는 아이들이 있어 병원 치료 및 추가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비전케어’에서 한국 의사로 구성된 수술팀이 오셔서 백내장과 녹내장이 의심되는 아동들의 검사와 수술을 실시했습니다. 이 중 모하메드는 백내장과 심한 사시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사시 수술은 해당 선생님이 계시질 않아 다음에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번에 받은 백내장 수술로 인해 앞이 너무나 깨끗하게 잘 보인다고 행복해 합니다.

또 시력이 나빠 안경을 써야 하는 아이 8명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비전케어’에서 이동진료를 나오는 지역 보건소가 키티코 초등학교와 멀지 않은 곳에 있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시력 및 안약 투약 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2 밝아진 세상

보호자와 저희 Staff 까지 12명이 넘는 인원들을 어떻게 데리고 가야 하나 고민 중이었는데 ‘비전케어’에서 직접 엠블런스로 픽업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검사한지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아이들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안경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과 한국 등 선진국에서는 안경의 착용율이 높지만 우간다의 저소득층 아동들이 시력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거나 안경을 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당장 눈 앞에 먹고 살 거리를 생각해야 하고 코 앞에 닦친 학비를 내야 하는데 보고 걸을 수 있으면 됐지 시력교정에 신경 쓸 삶의 여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8명의 학부모와 선생님 모두 이 아이들이 시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학교 전체에서 안경을 쓴 학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제야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을 착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욱 밝아진 눈과 함께 이 아이들의 미래 또한 환히 밝아지고 더욱 빛나면 참 좋겠습니다.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우간다 다일공동체 +256-771-072-382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탄자니아 TANZANIA

제5기 호프클래스 학생들의 졸업과 편입학

사랑하는 후원자님, 복된 2019년 되세요! 한겨울인 북반구의 한국과 북미주에 계신 후원자님들께 한여름인 탄자니아의 뜨거운 열기를 신년선물로 전합니다.

제5기 호프클래스 아동 38명은 마지막 졸업시험을 치르고 졸업했습니다. 졸업생 중 34명은 일반공립초등학교로, 1명은 특수학교로 편입학을 했고, 3명은 제6기 신입생들과 1년 더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스와힐리어를 말할 줄만 알던 아동들이 지난 1년간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는 제법 잘 읽고, 쓰게 되었습니다. 산수도 세자리 숫자까지 더하고 빼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

다. 그러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희망이 없던 아동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면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기뻐하는 아동들과 학부모들을 보니 지난 1년간 흘린 땀이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사탕목걸이와 졸업식 도구를 선물해주신 최병택 목사님과 이종례 사모님, 간절히 기도해주신 김혁수 목사님과 사모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제6기 호프클래스 신입생 아동 40명은 12월 21일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오는 2월 1일 입학과 더불어 공부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호프클래스 6기 아동들에게 계속해서 따뜻한 성원과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실리아니네 벽돌집이 건축되었습니다!

익명의 한 후원자님 후원으로 네실리아니네 든든한 벽돌집이 건축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주 밝게 생활하고 공부하고 봉사하던 네실리아니네 집이 건축되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녀는 외할머니, 엄마, 이모와 함께 모녀 3대가 다 쓰러져가는 임시가건물 같은 함석집에서 살았습니다. 연로하셔서 노동력을 잃은 외할머니와 시력을 잃은 이모, 그리고 정신병력이 있는 엄마와 함께 살면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봉사하고 방과후 돌을 깨던 네실리아니였기에 저와 우리 스텝들뿐만 아니라 주위의 이웃들도 모두가 아주 기뻐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집이 완성되기 직전에 외할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신 것입니다. 날마다 벽돌이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며 함박웃음을 짓던 할머니를 생각하니 참 아쉬움이 큼니다. 하늘나라로 가시던 날 밤도 지붕이 올라가는 것을 보시며 기뻐하시더니 그날 밤 주무시며 아주 편안한 미소를 지으신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비록 할머니는 하늘나라로 떠나셨지만 딸들과 손녀를 향한 그녀의 마음은 이 든든한 벽돌집에 영원히 함

께 머물 것입니다. 할머니를 생각하며 네실리아니네 집 마당에 바나나 나무 두 그루를 심었습니다. 이제 매년 열리는 바나나를 보며 네실리아니네 가족과 이웃들은 할머니를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네실리아니네 가족은 대우기에도 불안하지 않고, 화장실 사용도 불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력이 없는 네실리아니네 형편을 고려해서 방 3개 가운데 1개를 임대하여 가정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실리아니네 벽돌집 건축을 후원해 주신 익명의 후원자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후원자님, 참 감사합니다! 복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255-629-426-641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미국 AMERICA

다일 (다시한번 일어서는) 미주다일공동체 ! 파이팅!

할렐루야!

2019년 새해에 미주다일공동체에서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해도 미주다일공동체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신 모든 미주 후원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의 미주다일공동체가 있기까지 한분 한분 후원회원님들의 기도와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2019년 한 해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리고 2019년을 맞이하는 시점인 지난 11월과 12월 사이에 크고 작은 미주다일공동체의 소식들을 함께 공유해 드립니다. "최일도 이사장님과 김연수 상임대표님이 11월14일~12월5일 기간 중에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담임 조은상 목사님), 버지니아 리치몬드 주 예수교회(담임 배현찬 목사님), 보스톤 케임브리지한인교회(담임 김태환 목사님), 시카고 네이

퍼빌 온누리교회(담임 이종재 목사님)를 순회 하시며 영성집회와 리뉴 주강사와 세미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초청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교회와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아틀란타 미주다일공동체 본부에서 2018년 정기이사회를 주최하시고, 미주다일 이사님들과 후원교회 담임 목사님, 후원회원들을 만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셨습니다. 이번 정기이사회에서는 아틀란타의 남기만 이사님과 뉴저지 베다니 교회의 김성권 장로님을 미주다일공동체의 신임 이사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신임 이사님과 모든 이사님들은 더욱 2019년부터 힘차게 미주다일공동체가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주다일공동체가 2019년에는 중남미 사역지 한 곳을 개척하여 사역의 장을 확장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다일공동체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넘어 중남미까지 나눔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일의 사역을 함께 동참해 주실 미국에 계신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또한 2019년 한 해는 한국의 청량리 밥퍼 재건축 후원모금을 위하여 미주다일공동체가 힘차게 될 것을 다짐한국개신교의 나눔의 상징 아이콘인 청량리 밥퍼 건물이 현재까지도 임시 가건물 상태로, 어르신들이 불편한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리한 새로운 종합복지관으로 재탄생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주다일공동체가 함께 모금을 위하여 일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금번 이사회는 미주다일공동체 이사님들이 더욱 더 한마음 한 뜻으로 한곳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의 할 수 있는 아주 의미있는 자리였던 거 같습니다.

지난 12월 8일에 성탄절 특별나눔행사가 있었습니다.

지역 사회의 어려운 400여 가정들에게 터키와 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남기만 이사님께서 함께 참여하시어 도와주시고, 다일 스텝과 봉사자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2019년 새해를 시작하며 미주다일공동체의 새로운 도약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일어서는 미주다일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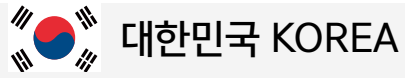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미주 다일공동체 +1-770-813-0899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아주 특별한 다일문화대학! 박상원 홍보대사의 그린 마일...

“2018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동대문구와 함께하는 협치형 프로그램인 "다일문화대학"에서 서른번(30회)의 '세상에서 가장 멋진 수업'을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였습니다.

다일문화대학 28강은 국민배우이신 박상원 홍보대사님의 강의였습니다.

무대 연기를 시작으로, 연기생활 40년!

바쁜 일정속에서 수차례 조율을 통해서 강의차 오신 박상원탈렌트께서 오늘은 박상원교수님으로 다일문화대학 강사님으로 오셨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지속적으로 다일공동체 홍보대사로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탄자니아 다일공동체를 최일도목사

님과 함께 비전트립을 다녀오시고 아프리카를 20번째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사랑을 짐작할 만 합니다.

연기자로서의 걸어온 길...

때로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특유의 성실함과 끈기로 40년 연기자로서의 인생을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강의 내용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인 그린 마일... (그린 마일은 사형수들이 감방에서 전기의자로 가는 녹색 리놀륨이 바닥에 깔린 길을 뜻한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치열한 그린 마일이 있다고...

오늘도 촬영현장 속에서, 강의 장소에서, 일상에서, 유한한 시간을 무한한 시간으로 관리를 하며 살아가시는 박상원홍보대사님! 늘 응원합니다.



“눈물겨운 다일문화대학 수료식”

최일도 학장님의 서른번째 '섬김과 나눔의 삶으로' 강의를 끝으로 웃음꽃을 피우며 제1기 다일문화대학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원장님! 아... 오늘 정말 행복한데요... 눈시울을 붉히면서 어색한 미소를 보이시던 지역주민 이인근님...

제가 우등상을 받다니요!! 진심 만족한 행복의 미소를 보이신 다일문화대학 수료생중 한분!!

서른 번의 강좌 동안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으시고 일년 과정 수료를 하신 것입니다. 이런 우등생이 우리 입소자 어르신 포함 총 5명이었고 50% 출석으로 수료를 하신 분이 41명이었으니 또 2번 이상 과정에 참여한 분이 총 132명이었으니 가슴 벅찬 시간들이었습니다,

즐업가운을 입으신 분들은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특별히 단 한분이라도 '행복' 했다고 진심어린 고백을 하시니 이 또한 감동이고, 보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분들의 미소는 소중한 우리들의 일상에서 가진 것 없지만 소박한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일문화대학 30강좌를 마감으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수업을 행복하게 제1기 수료식을 마쳤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2018년 선물과 같았던 문화대학! 응원해 주시고 재능기부를 해주시며 기꺼이 달려오신 서른 분의 최고의 강사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삶을 보물의 시간으로 바꿔주신 소중한 수강생들과 기회를 만들어주신 서울시 그리고 동대문구청, 담당실무자님들, 다일작은천국의 스태프들, 함께 참여해 주신 소중한 수강생들과 함께 기쁜 새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2019년 새해에도 더욱 많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수업을 마치신,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다일작은천국 02-2213-8004

대한민국 KOREA



청량리 쌍굴다리 아래로 부는 바람은 유난히 차갑습니다. 이제 그 겨울바람이 귓불을 스치며 속삭이는 소리를 듣는 계절이 왔습니다. 이 혹독한 겨울은 인생에서 꼭 거쳐야 하는 하나의 과정임을 인지하기에 지팡이와 함께 어르신들은 힘겨운 발걸음을 아무런 불평 없이 밥퍼로 옮기십니다.

오늘로 밥퍼에서 봉사한지 151번째인 이재웅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밥퍼 봉사는 물론 해마다 여름방학 시즌이 되면 페루의 쿠스코 음악학교에서 자비량으로 음악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봉사는 그 시스템에 수긍하고 따라가는 것이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연세대 음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음대와 콘서바토리에 오페라를 전공하고 유럽과 아시아, 미주지역에서 연주활동을 해 온 음악가입니다.

특히 후학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며 삼육대 콘서바토리에 오랜 시간 성악 지도를 해왔으며 현재는 장충교회 성가대 지휘로 섬기고 있습니다.

밥퍼에서 봉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신 후 절망적인 상태에서 수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공부하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이 조금 여유로워지니 문득 다일공동체와 최일도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밥퍼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어르신들을 나의 부모님처럼 여기며 봉사를 하다 보니 매주 두 번 정도는 밥퍼 봉사를 위해 나의 시간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밥퍼 봉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이 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놀랍게 발전해 가는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서 아직도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분주한 봉사시간이 끝나면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 가슴 가득 차 오르는 느낌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매번 느끼게 됩니다.

자원봉사자로서 밥퍼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각박한 현실 앞에서 봉사자의 수는 줄어드는 듯이 느껴지고 후원하는 손길도 줄어들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

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양식을 사랑 듬뿍 담아서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은 천사들이 모여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이 땅의 평화와 행복을 전달하는 실천의 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밥퍼나눔운동본부 02-2214-0365



밥퍼 후원요청광고

음식물 진공 포장기가 필요합니다!

하루 800여명 이상 방문하시는 밥퍼는 날마다 엄청난 양의 식재료를 다루고 있습니다. 더운 날이나 추운 날이나 자원봉사자분들의 손길로 다듬어지는 식재료와 음식물을 신선하게 보관하여 독거노인분들과 노숙하시는 분들께 건강한 음식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일에 꼭 필요한 것이 음식물 진공 포장기입니다. 특별히 매일 수백명을 위한 식재료를 다루다 보니 **업소용 진공포장기가 필요합니다.** 새로 구입비만 200만원이상의 고가의 제품으로 **많은 후원자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밥퍼에 업소용 진공포장기를 후원하실 천사를 찾습니다!**

후원전화 02-2212-8004, 02-2214-0365 담당 밥퍼나눔운동본부 김미경 실장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밥퍼나눔운동본부



삼육보건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밥퍼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밥퍼를 방문하여 식사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검사와 선물 (수면양말, 빵)을 나눠드렸습니다.

어르신 한분 한분께 정성을 다하여 치매 검사를 하고,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어주며 봉사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멋진 간호사가 되기를 바라며, 2019년에도 밥퍼와 함께해주세요!



정화여자중학교

정화여자중학교 학생 60여명이 밥퍼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쉽지 않은 밥퍼 봉사지만, 모두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으며 열심히 해주었고, 식사를 하기 위해 줄을 기다리는 시간 첼로와 바이올린 연주로 지루하지 않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비도 오고, 갑자기 추워진 날씨중에도 열심히 해준 정화여자중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미경 님

바쁜 일정중에도 시간을 내시며, 봉사자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할 때 밥퍼와 함께 해주시는 김미경님을 소개합니다. 처음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봉사자의 손길이 필요한 밥퍼를 알게 되었고, 봉사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어르신들께 음식을 드리고 어르신들께서 감사인사 해주실 때 큰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김미경 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 어르신들도 충분히 느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밥퍼와 함께 따뜻한 나눔과 섬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베트남



호치민한인여성회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천해 주시는 '호치민한인여성회'는 매년 잊지 않고 밥퍼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나눔과 봉사에 마음을 모아 활동하시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열정이 대단함을 느낍니다. 밥퍼에서 식사하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한분 한분을 낮은 자세로 눈을 맞추고 밥을 대접해 드림으로써 사랑과 온정을 전해주셨습니다.

매년 잊지 않고 밥퍼를 찾아주시고, 맛있는 밥을 대접해 주시는 호치민한인여성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간다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1>

세계 여행 중 우간다에서 빵퍼 봉사

세계여행 중 우간다를 방문한 '이 건'님께서 키티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빵과 우유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유치원에서 잠시 봉사 중에 다일공동체에서도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의 계획들도 순조롭게 잘 진행되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천국



경희여고 1학년 단체봉사팀

말만 들어도 친숙한 경희여고 1학년 학생들이 단체로 다일작은천국에 봉사를 왔습니다. 항상 어디서나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눈에 익기 마련인데 봉사를 온 친구들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저번에도 다일작은천국에 봉사를 왔던 친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에는 행사를 앞두고 선물포장하는 봉사를 하였습니다. 너무나 놀랐던 것은 친구들이 어디서 포장하는 기술을 배워온 것과 같이 백화점에서 선물을 사온 것처럼 너무나 이쁘게 포장 하였습니다. 이 선물을 받을 어르신들의 마음을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등학생 친구들 답지않게 대견한 모습에 작은천국 직원들도 모두 감동하였습니다. 다음번에도 시간 내서 봉사 와주세요 저희가 언제든 기다리고 있습니다.



휘경공고 전기제어과 봉사팀

항상 일주일에 한번씩 반가운 얼굴들이 작은천국에 봉사를 옵니다. 바로 휘경공고 자원봉사자들인데요. 휘경공고 전기제어과 봉사팀이 다일작은천국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친구들의 외모만 보고 대학생 봉사자들이 다일작은천국에 봉사를 온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 휘경공고 학생들이었습니다. 외적으로 너무나도 성숙한 모습에 마음도 성숙해 보이는 친구들이었는데 대화를 나눠보니 역시나 고등학생다운 순수함이 묻어나왔습니다. 봉사를 시키면 시키는대로 열심히 하고, 구석 구석 청소까지 하는 모습에 저희 직원들은 쉬엄쉬엄 일 하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 다음엔 정기적인 봉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봉사를 오고 싶다는 이야기를 봉사하는 내내 연신 말해주었는데 다음번에도 다일작은천국으로 봉사와주세요! 휘경공고 학생들 고맙습니다.



다일 문화 대학 봉사

매주 수요일은 다일문화대학이 있는 날입니다. 항상 진행하는데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이를 도와줄 봉사자들이 다일작은천국에 하나둘씩 모였습니다. 아침 9시 너무나도 빠듯한 시간인데 다들 늦지 않고 도착하여 봉사할 자세를 갖춘 분들이 봉사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뽑기권과 과자, 학생 명단 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확실히 성인 봉사자들이라 차분하게 일하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또한 문화대학이 끝나고 마지막 청소를 하는데 의자 정리부터 바닥 청소까지 깔끔하게 청소해놓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봉사자들이 다일작은천국에 자주 봉사 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아쉽게도 평일날 자주 시간이 안나신다고 시간이 나실 때 연락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다음에도 꼭 봉사와러 와주세요. 언제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씨엠립 본원)



길르앗 의료선교단(씨엠립)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의 미소와 함께, 길르앗 의료선교단에서 캄보디아다일공동체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2시간여 떨어진 먼 거리에서 프놈끄라움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일정을 마치자마자 부리나케 달려오셔서 밥퍼와 빵퍼, 위생사역을 함께 섬겨 주셨습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의료선교 활동으로도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순수하고 예쁜 아이들의 눈망울에서 사랑을 담아 가신다며 사랑의 나눔과 섬김을 함께해 주신 길르앗 의료선교단 가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어곤 뽀레야 예수!



세빛선교학교(씨엠립)

밝은 에너지를 가득 품은 대전세빛선교학교 가족들이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와 함께 8일여 간의 비전트립을 함께해 주셨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세빛가족들은 밥퍼와 빵퍼, 위생사역, 환경정화 활동을 비롯해 놀이 사역과 프놈끄라움, 쯡크니어 마을 빵 나눔 활동 등을 함께 하였습니다. 특별히 밥퍼와, 교육분야를 위해 한국에서부터 마음을 모아 오신 후원의 손길도 더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날씨보다 더 크고 우렁찬 함성과 열정으로 모든 일정을 함께해 주신 대전세빛선교학교 모든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어곤 뽀레야 예수!

캄보디아 (프놈펜 지부)



홍콩감리교회 Fortress hill methodist secondarg school(프놈펜)

홍콩감리교회 Fortress hill methodist secondarg school 특수학교에서 프놈펜 지부로 밥퍼 봉사를 오셨습니다. 17분의 선생님과 학생들로 오셔서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아주고 밥퍼봉사와 위생봉사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특히 특수학교 학생들이라서 아이들이 잘 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선생님들의 걱정과 달리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힘들지만 괜찮다고 웃으며 말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다시 한 번 프놈펜 지부로 와서 밥퍼봉사와 위생봉사를 해주신 Fortress hill methodist secondarg school 특수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홍콩감리교회 THE METHODIST CHURCH, HONG KONG(프놈펜)

홍콩감리교회에서 프놈펜 지부로 밥퍼봉사를 오셨습니다. 오자마자 웃으시면서 우리를 반겨 주시고 또한 익숙하게 밥퍼와 위생봉사를 말을 안해도 알아서 해주시는 홍콩감리교회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현지직원 숙소 완공 현판식을 진행했는데요, 홍콩감리교회분들이 완공된 현지직원 숙소를 보면서 뿌듯함과 이렇게 교회가 후원해주는 돈으로 현지직원 숙소를 해주게 되어서 자기들도 감사하다고 표현해주셨습니다. 프놈펜 지부로 와서 밥퍼봉사와 위생봉사를 열심히 해주시고 현지직원 숙소완공식의 마무리를 잘해주신 홍콩감리교회 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후원방법

모든 후원금은 연말 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다일공동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신용카드와 CMS로 다일공동체의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www.dail.org



전화로 신청하기

다일공동체 전화 02.2212.8004로 후원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02.2212.8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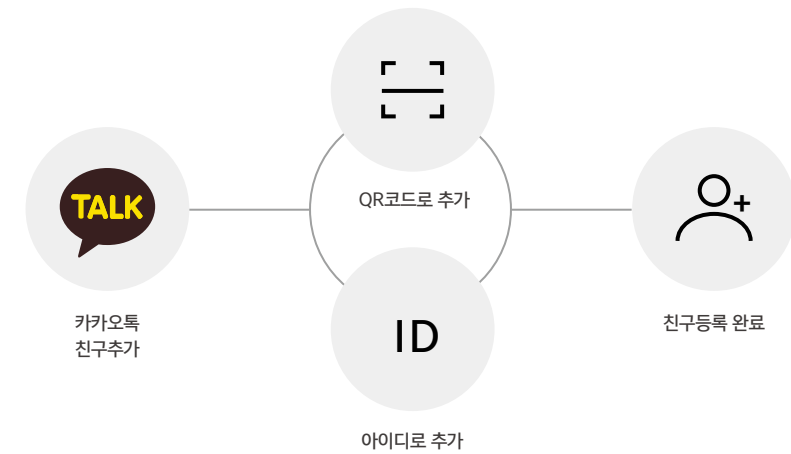


우편으로 신청하기

소식지 안쪽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다일공동체 SNS 친구가 되어주세요!



후원신청서 작성



후원신청서 사진 전송



다일직원 확인전화

다일공동체 카카오톡 친구를 맺으시면 문의 답변 및 다일공동체의 소식을 보다 신속하게 받아 보실 수 있고 더욱 간편하게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SNS로 다일공동체 만나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 스토리

를 통해서 다일공동체 소식을 날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과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친구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다일공동체 sns 친구가 되어주세요.**



나눔을 실천해 주신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2018년 10월 ~ 2018년 11월 신규 정기후원 회원명단</p>	<p>(주)애플씨, 30주년감사헌금, AHNBAE-HYUN, CHRISHYUNM, 강건우, 강석훈, 강영신, 강영주, 강중구, 강중원, 계충욱, 고경아, 고광경,故김미경, 고취철(죽1015구), 광명근, 구홍모, 국원경, 권순남, 권승훈, 권영훈, 관용태, 권은구, 권현구, 김건우, 김경완, 김경은, 김경훈(밥퍼간물기부), 김광선목사, 김기성, 김기수, 김금순, 김나현, 김대성, 김도서, 김동식, 김동진, 김동호목사, 김두레, 김명규, 김명선, 김문주, 김민희, 김미라, 김병석, 김분영, 김상구, 김상은, 김선희, 김성민, 김성욱, 김성원, 김성인, 김소영, 김소윤, 김승수, 김수정, 김수진,황중연, 김숙자, 김숙자, 김순덕, 김순례, 김승호, 김연이, 김영필, 김영란, 김영록, 김오욱, 김옥숙, 김은기, 김원삼(티앤씨백토리), 김유경, 김은희, 김익연, 김일식, 김정돌, 김자아, 김정희, 김중란, 김주영작가님, 김주진, 김준규, 김철, 김철민,이순기, 김필순, 김학자, 김현홍, 김현술, 김형기, 김호숙, 김희자(인바), 김희성, 김희순, 김희자, 남정우, 남학현, 남현주, 노재만, 노형석, 류상완, 림예화, 문성화, 민시연, 민우식, 박광수, 박남우, 박명심, 박민희, 박병수, 박병주, 박병학, 박서경, 박성목, 박성준, 박성준, 박송자, 박일동, 박영미, 박영배, 박장호, 박재은, 박정순, 박정연, 박준수, 박중현, 박진영, 박창훈, 박준영, 박혜인(가죽, 박희진, 밥퍼후원, 배병철, 배성임, 배중현, 백성일, 변정숙, 변정만, 벨내이교회, 본도시락 고려대점, 본도시락 상수점, 본도시락 시립대점, 본도시락 신당점, 본도시락 신철동역점, 본도시락 장안점, 본도시락 한양대후문점, 본도시락 회기점, 사랑의교회여제자3반, 상심리 흥천기,서영일, 서울외국인학교JUNE, 서진형, 석경미, 석영옥, 설영민, 성경희, 성도현, 성북강북행정실장협의회, 성소영, 성악기이재용, 성욱이, 세월농원, 손희선, 신동윤, 신보미(조화영)조화민, 신본옥, 신오우, 신정수, 신중호, 신화철, 심진우, 싸이닉스, 아굴라, 아마우치야츠코, 양덕태, 양상래(미화)박문석, 양은혜, 양혜주, 양희준, 양희준, 양희현, 엄성윤(둘사랑교회), 이지완, 연규정, 예수쟁이전사, 오애라, 오은이(약어유), 옥준서, 우상은, 우순선, 우진희, 원지희, 유선아, 유상재, 유은숙, 유제환, 유지영, 유혜민, 윤경희, 윤성범, 윤희섭, 이경숙(박소미, 이경자, 이광우, 이대순, 이미경, 이마숙, 이마경, 이민영, 이상순, 이상대, 이상숙, 이상진, 이서현, 이선우, 이상훈, 이세은(행복말, 이세진, 이소경, 이승희, 이수진, 이영순(행복, 이영주집사)가정, 이옥화, 이왕원,이창원, 이용기, 이우식, 이은경, 이은지, 이장훈, 이재목, 이재선, 이재혁, 이정란, 이종우, 이지선, 이진경, 이춘희, 이현성,이예지, 이현영, 이혜림, 임문길, 임세영(한혜순), 임송옥, 임채산, 임태경, 장미란, 장보식(박미영), 장수성, 장은미, 저금통익명, 저금통정규하, 저금통정대기, 저금통정성미, 저금통정영은, 전경중, 전민영, 전숙희, 전윤진, 전은희, 전혜원, 정경옥, 정명순, 정순교, 정연숙, 정연자, 정영자, 정윤우, 정은하, 정은우, 정의호 상우, 정지용, 정해찬, 정혜림, 정화여중, 정후철, 조선진, 조선희, 조수옥, 조용훈, 조윤우, 조제호, 조현준, 종로2가, 중앙중학교, 주식회사스마트관리, 주영환, 지순덕, 지어은, 진성협, 차인태, 차홍선, 채영근, 최경서, 최명재, 최문하, 최법락, 최보규, 최왕영, 최영란, 최은영, 최윤희, 최익수, 최재철, 최정선, 최정선, 최준원, 최지우, 최현정, 최호정, 카스인텍, 카일스/조단스, 탁금옥, 폴레올레9월손님들, 하안, 한민기, 한병천, 한양대86동기회, 한일사회적협동조합, 한지예, 한앤 63956880, 허영진후주, 허정희, 헤브론스타벤처(주), 흥동옥, 홍사경, 홍상표, 홍선표, 홍승미, 홍현아, 황금미, 황서균, 황화진</p>		
<p>밥퍼나눔운동본부 2018년 10월 8일 ~ 2018년 12월 6일 후원내역</p>	<p>후원금 내역 DB메탈, 의당기념사업회, 국방홍보원, 서울시교육청공무원, 사단법인 뷰티플라이프,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광현교회, 이인열, 박명희, 소망교회 소망 봉사팀, 조원진, 김수인(코레드기획), 장은하, 대한예수교장로회안악, 이형선, 천사회이영희, 한국교직원공제회, 박종일, 국순애, 락영순, 윤점순, 서준화, 서울교통공사 신답승무사업소, 유재환, 신동윤, 서울지방국세청, 김중일, 국토정보공사 서울동부지사, 유연우, KB국민은행 건능동지점, 김금선, 지봉위(이카페, 인자교회 (이동원), 서울교통공사 김동열, (선, 정혜영 부부), 최경근, 정기천, 세무법인 석성, 이현아, 정화여자중학교, 조현숙, 한양대86동기회, 서울외국인학교 JUNE, 광현교회, SG서울보증, (주)고성디자인, 소망교회 장기수 장로, 박명희, 김미경, 정경옥, 동아쏘시오홀딩스, (주)사람인, (주)애플씨, 헤브론스타, 성북강북행정실장협의회, 아세나글로벌, 박명운,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홍성순</p>	<p>후원물품 내역 홍예은 (쌀 180kg), 홍주은 (쌀 40kg), 홍은석 (쌀 180kg), 홍시은(쌀 40kg), 홍시은 (쌀 40kg), 김소연 (아이스크림 2008개), 김도의 (쌀 380kg), 동방 재할근로복지관 (빵 3,600개), [서울우유 (우유 2,160개), (요쿠르트 2,000개)], 석춘자 (쌀 20kg), 섬기는 교회 콩나물 (90kg), 뚜뚜뽕뽕 빵 (86개), 서울교통공사 신답승무사업소 (내복 100벌), 허벌라이프 (영양제 27개), [세월농원 (사과 20박스), (쌀140kg)], (주)유원미트코리아 (육류 48kg), 삼오종합식품 (진간장 1일), 캐논코리아 (쌀 50kg), 한독환경 (삼급수독 150cc), (주)굿모닝푸드 (삼겹살), 농협 (고구마, 누룽지), 경흥농원 (꿀 100박스), 동아쏘시오홀딩스 (박스사 1,000개, 비티인C 5박스, 스킨가드뱃케어 1,000개), 서울지방국세청 (감장 김치), 국제라이온스협회 354-c (쌀, 잠골 1360kg)</p>	
<p>캄보디아 대상기간 2018년 10월 6일 ~ 2018년 12월 5일</p>	<p>후원자 Rocky Cafe, 고성새생명교회, 광안교회, 군포시자원봉사센터, 길르앗 의료선교단, 김선민, 나들성선교회, 대박, 무명, 봉화고등학교, 세빛선교회,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수행자, 승원교회, 원은정, 이규석&김민희, 이명애, 이재림, 익산사정, 정진규, 카도, 캄디아 사역자 일동, 한국공관대학교, 한국산업인력공단 노사연수단, 흥광감리교회</p>	<p>후원물품 내역 식료품: (주)두산전자, 영암군 새마을운동협회 / 의류 및 신발: Big Light 교회, 나들성선교회, (주)두산전자, 무명, 봉화고등학교, 세빛선교회, 영암군 새마을운동협회 / 학용품: (주)두산전자, 무명, 봉화고등학교 / 생필품: 무명, 영암군 새마을운동협회 / 집합: 무명 / 의약품: 길르앗 의료선교단, 봉화고등학교</p>	
<p>네팔 2018년 10월 6일 ~ 2018년 12월 10일</p>	<p>'큰술종리교회의 이효림'(카트만두 방문), '학이재대안학교'(포카라 방문)</p>	<p>중국 현지 후원자 및 물품 후원자 명단 2018년 10월 8일 ~ 12월 6일</p>	<p>후원금 김광숙, 김주희, 김성재(Obey & Praise), 김학용, 오광, 왕하이비, 왕 하이타오, 종다일 졸업생 한국모임</p>
<p>베트남 현지 후원자 및 물품 후원자 명단 2018년 10월 8일 ~ 2018년 12월 6일</p>	<p>후원금 A PLUS, K.I.S.봉사단, K.I.S.오케스트라, LOTTERIA, NAHAL, POSCO DAEWOO VIETNAM, ---SKY MART 1호점 모금함, VEGAS, 권민혁님, 기업은행, 닥터가, 박두재님, 밥퍼29팀, 보민건설, 사이공드림교회, 사이공한마음연합교회, 아리랑화학, 아산상선, 오희숙님, 정혜일님, 잠조은광성교회, 호치민중앙교회, 호치민한인여성회</p> <p>후원물품 내역 ARTISAN(빵), 노엘(달걀), K.I.S.봉사단(쌀, 초코파이, 바나나, 김), K.I.S.오케스트라(쌀, 초코파이, 바나나, 김), VEGAS(라면), 노엘(계란), 밥 퍼29팀(수세미), 사이공드림교회(라면, 우유), 사이공한마음연합교회(쌀, 초코파이, 바나나, 김), 이철호대표님(노트북)</p>		

· 해외 분원 후원명단은 현지에서 직접 후원하신 분들입니다.
· 격월로 발행되는 소식지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관리실 02-2212-8004

후원 안내	
<p>정기후원</p>  <p>만원의 행복(월 1만원) 밥퍼나눔운동본부, 천사병원, 다일의 해외 사역을 위한 후원입니다.</p>  <p>1:1 해외아동 결연(월 3만원) 해외 아동과 1:1 결연을 맺어 아이들의 양육을 돕고 꿈을 키워주기 위한 후원입니다.</p>	<p>일시후원</p>  <p>다일천사후원(1구좌 100만원) 다일천사회원이 되어 국내·외 다일공동체의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후원입니다.</p>
 <p>천사기업(월 10만원 이상) 기업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기부함으로써 소외된 이웃을 돕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후원입니다.</p>  <p>천사교회(월 10만원 이상) 교회가 다일공동체와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일정 금액을 기부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나가는 후원입니다.</p>	 <p>다일평생천사후원(1구좌 1004만원) 다일평생천사회원이 되어 설교산 다일공동체 프로젝트 및 국내외 다양한 다일 사역을 지원하는 평생가족 후원입니다</p>
<p>후원계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주 : 다일복지재단 sc제일은행 150-10-012464 국민은행 010-01-0619-487 기업은행 017-033086-01-013 농협 351-0741-3770-13 신한은행 140003287625 우리은행 151-05-001902 우체국 010983-01-001609 하나은행 214-890006-95604 · 예금주 : 다일작은천국 우리은행 1005-801-8489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주 : (사)데일리다일 데일리다일 나눔계좌 국민은행 467701-01-298842 네팔계좌 국민은행 467701-01-299245 베트남계좌 국민은행 467701-01-299216 우간다계좌 국민은행 467701-01-299261 중국계좌 국민은행 467701-01-299203 캄보디아계좌 국민은행 467701-01-299232 탄자니아계좌 국민은행 467701-01-299258 필리핀계좌 국민은행 467701-01-299229 · 새로운 다일공동체 해외분원 계좌입니다. 사단법인 데일리다일로 다시 태어나는 다일공동체 해외분원을 응원해주세요. <p>미주 및 캐나다 다일공동체 후원문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eck 후원 Pay to the order : Dail community of USA, P.O BOX 337 SUWANEE GA 30024 Pay to the order : Dail Community of CANADA, 1811-270 Scarlett Rd. Toronto, ON M6N 4X7, CANADA · Debit / Credit card / ACH 후원 미주다일공동체 오피스 770-813-0899 / usa@dail.org 로 문의해 주세요. · 캐나다 다일공동체 오피스 1-416-824-4831 로 문의해 주세요. · 미주다일공동체 홈페이지 (dailusa.org)에서도 회원가입후 후원신청 가능합니다. 	

다일복지재단 후원 신청서

후원자 정보

이름(기업명) _____ 생년월일 _____ (남/여)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_____

※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실 경우, 13자리(10자리) 모두 기재 부탁드립니다.(미기재시 소득공제 불가능)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연락처 SMS 수신 동의 이메일 이메일 수신 동의

주 소 우편물 수신 동의

원하시는 후원란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국내)

무상급식(밥퍼) 의료지원(천사병원) 대복지원(밥상나눔) 전체사업 후원

후원금액

월 1만원 월 3만원 월 5만원 월 10만원 기타 월 _____ 원

일시후원

다일천사후원 1구좌 100만원 다일평생천사후원 1구좌 1,004만원
 다일아너스후원 1구좌 1억 기타 _____ 원

캠페인후원

밥퍼 재건축후원 거리성탄(방한복)후원
 1구좌 3만원 10구좌 30만원 100구좌 300만원 기타 _____ 원

납부방법

자동이체 신용카드 지로 (신용카드 후원자는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해 전화드리겠습니다.)

CMS 자동이체 동의서(정기후원에 해당)

출금은행 _____ 예금주 _____

계좌번호 _____ 이체 희망일 5일 15일 25일

예금주 주민등록 앞번호 _____ (남/여) * 해당 출금일에 출금되지 않을 경우, 매월 말일(평일)에 재출금됩니다.

CMS 출금 이체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금융거래정보(생년월일,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 이체하는 때로부터 해지신청을 할 때까지 수납기관에 제공 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거래법"에 따라 동의합니다.

다일복지재단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지정기부금단체이며,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후원자 정보 및 결제 정보 기재에 동의하여 약정합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이름 : _____ (서명)

데일리다일 회원 신청서

후원회원 정보

이름(기업명) _____ 생년월일 _____ (남/여)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_____

※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실 경우, 13자리(10자리) 모두 기재 부탁드립니다.(미기재시 소득공제 불가능)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연락처 SMS 수신 동의 이메일 이메일 수신 동의

주 소 우편물 수신 동의

원하시는 후원란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해외)

무상급식(밥퍼) 의료지원 교육지원 전체사업 후원
 1:1아동 결연(월 3만원 지정) (기타 : _____ 명)

후원금액

월 1만원 월 3만원 월 5만원 월 10만원 기타 월 _____ 원

일시후원

다일천사후원 1구좌 100만원 다일평생천사후원 1구좌 1,004만원
 다일아너스후원 1구좌 1억 기타 _____ 원

캠페인후원

네팔 고아원 건립 후원 탄자니아 비전센터 건립 후원
 1구좌 3만원 10구좌 30만원 100구좌 300만원 기타 _____ 원

납부방법

자동이체 신용카드 (신용카드 후원자는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해 전화드리겠습니다.)

CMS 자동이체 동의서(정기후원에 해당)

출금은행 _____ 예금주 _____

계좌번호 _____ 이체 희망일 5일 15일 25일

예금주 주민등록 앞번호 _____ (남/여) * 해당 출금일에 출금되지 않을 경우, 매월 말일(평일)에 재출금됩니다.

CMS 출금 이체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금융거래정보(생년월일,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 이체하는 때로부터 해지신청을 할 때까지 수납기관에 제공 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거래법"에 따라 동의합니다.

데일리다일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지정기부금단체이며, 납입하신 후원회비는 법인세법 제 24조 및 소득세법 제 34조에 의거하여 기부금영수증발급 및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사)데일리다일의 후원회원으로 신청합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이름 : _____ (서명)

국내·해외분원 연락처

다일공동체

- 📍 12474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로 902번길 17-3
- ☎ 031-584-7478

사단법인 데일리다일

- 📍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 ☎ 02-2212-8004

다일복지재단

- 📍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 ☎ 02-2212-8004

밥퍼나눔운동본부

- 📍 025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 8
- ☎ 02-2214-0365

다일천사병원, 다일작은천국

- 📍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 ☎ 02-2213-8004

설곡산다일공동체

- 📍 12471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봉미산안길 330
- ☎ 031-585-2004

다일 평화의 마을

- 📍 12474 경기 가평군 설악면 묵안로 902번길17-3
- ☎ 031-584-7478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씨엠립 본원

- 📍 St N'63 Tour Kork Pey Phnom Krom village Siem Reap Commune Siem Reap Province, CAMBODIA
- ☎ +855-12-808-861

프놈펜 지부

- 📍 Angdong village, Kook Roka Commune, Dong Kor District, Phnome Penh, City, CAMBODIA
- ☎ +855-17-367-867

필리핀 다일공동체

까만씨 본원

- 📍 2A Mustang st Pusok, Lapu-lapu city, 6015 Cebu, PHILIPPINES
- ☎ +63-916-517-5892

네팔 다일공동체

카트만두 본원

- 📍 Manohora 16 Madhayapur thimi city Bhakthpur, NEPAL
- Post Box No. 25655 Kathmandu, NEPAL
- ☎ +977-98494-58330

포카라 지부

- 📍 9 Shivatol Buspark Pokhara Kaski, NEPAL
- ☎ +977-98032-70824

중국 다일공동체

- 📍 133300 中国吉林省琿春市西城名苑53栋1单元601,602
- ☎ +86-433-753-8004

우간다 다일공동체

- 📍 P.O Box 85 Kisubi, UGANDA
- ☎ +256-771-072-382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 📍 Sea Breeze APT SB-2, Plot No. 192, Dar es Salaam, TANZANIA
- ☎ +255-629-426-641

베트남 다일공동체

- 📍 21 đường Mỹ Giang 2B, Khu phố Mỹ Giang 2, phường Tân Phong, Quận 7, Thành Phố Hồ Chí Minh, Việt Nam
- ☎ +84-90-382-0918

미주 다일공동체

- 📍 2976 buford hwy Duluth GA 30096, USA
- ☎ +1-770-813-0899 / (Fax) +1-770-813-0133
- 🌐 www.dailusa.org

캐나다 다일공동체

- 📍 1811-270 Scarlett Rd. Toronto, ON M6N 4X7, CANADA
- ☎ +1-416-824-4831

아름다운 세상찾기

최일도 목사와 함께 하는 눈물과 감동의 힐링여행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우울증, 중독, 가정불화 등의 고통을 치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전통적인 기독교 영성수련



최일도 목사

다일공동체 대표
다일천사병원 병원장
다일복지재단 이사장
데일리다일 이사장

일정안내	2019년	1월	53기	1월 21일 ~ 25일 - 2단계
	영성수련	2월	196기	2월 4일 ~ 8일 - 1단계 / 29기 2월 11일 ~ 16일 - 3단계 54기 2월 18일 ~ 22일 - 2단계
등록안내 및 입금계좌	영성수련(단체사용신청 및 개인피정) 신청은 수련시작 일주일 전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수련비 입금으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수련 한달 전에 입금하시면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금계좌 : 농협 351-1035-5864-93 (예금주 : 다일공동체)			
신청 및 문의	문의 031-585-6478, 031-585-2004, 010-3671-8014 홈페이지 sgdail.org			

갈보리 채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988년 청량리에서 시작한 다일공동체가 초심으로 돌아가 나사렛 예수
의 영성생활과 예배 예전의 갱신으로 성사생활을 더욱 더 추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배하는 삶의 자리를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의 설곡산으로
옮겨서 매주일 공동예배를 드립니다. 예전이 살아있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을 설곡산 다일공동체의 갈보리 채플에 초대합니다.

주일공동예배 : 오전 11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봉미산안길 330(설곡리 105-3)
Tel. 031 585 2004(통화가능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네비게이션으로 '설곡산 다일공동체'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청량리 다일천사병원 앞에서는 매 주일 오전에 스타렉스가 출발합니다. 탑승을 원하시는 분은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9

HAPPY NEW YEAR

밥퍼 재건축을 위한 기도

밥으로 오신 예수님!
밥퍼나눔운동본부로 하여금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을 위하여
삼십년간 천만명 이상에게
따뜻한 밥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직도 건물은 임시 가건물입니다.
이제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튼튼한 시설로 재건축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며
특히 노숙하는 형제들과 고독한 어르신들에게
쉼터와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오십만명이 넘는 밥퍼의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사 밥퍼 재건축에 참여하게 하시어
동대문구의 명소가 되며
서울시의 나눔과 섬김의 아이콘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밥으로 화해와 일치를 이루시며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뜻한 한끼가 필요한 이들에게 밥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밥퍼 재건축 동참을 기다립니다.

후원문의 전화 02-2212-8004 홈페이지 www.dail.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467701-01-149676(예금주 : 다일복지재단)